

# Coffee Shop에 대한 대학생의 실내분위기 평가

The Atmosphere Evaluation in the Coffee Shop of the Undergraduate

○ 김 현 지\*  
Kim Hyun Gee  
일 소 연\*\*  
Lim So Yeon  
장 서 윤\*\*  
Chang Seo Yun  
안 옥 희\*\*\*  
An Ok Hee

## I. 서언

본 연구는 대중 휴식공간인 커피숍의 실내 분위기 평가를 위한 것이다. 특히 6가지 유형에 따라 특정의 커피숍이 연출해 내는 독특한 실내 분위기를 낚녀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그 반응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에 대학생들의 휴식공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휴식공간이 원래의 취지에 맞는 분위기를 창출해 내고 있는가를 알아 보는 것은 휴식공간과 실내분위기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현실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 II. 실험계획

### 1. 평가대상의 선정

커피숍의 분류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통풍(우리 고유의 전통 차만을 취급하는 곳으로 고유한 전통문화를 사용하여 고풍스러운 분위

기를 낸다), 목가풍(내추럴한 분위기로 천연재료인 나무를 소재로 하여 자연의 포근함과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로 자연스러운 곡선구성의 것을 이용한다), 모던풍(도회적인 현대적 이미지로 기하학적인 선과 면을 이용하여 단순하면서도 추상적인 느낌을 주고 심플하면서도 직선적인 구성이 기본을 이루고 있다), 클래식풍(전체적으로 차분한 색조에 유럽식 가구를 주로 사용한다), 셀프식(소비자가 주문하고 직접 coffee를 좌석에 가져오는 운영방식의 전문커피숍), 짜즈풍(흑백의 조화로 무거우면서도 안정되고 예술적인 분위기)의 6가지 종류로 나누었다.

따라서, 대구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커피숍을 실내분위기에 따라 위의 6종류로 나누어 각 종류별로 2곳씩 총 12곳을 선정하여 평가대상으로 정하였다.

### 2. 평가항목 및 피험자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형용사쌍과 본 연구에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형용사를 중심으로 본 실험에 적절한 형용사쌍을 찾기 위하여 100쌍의 형용사에 대한 예비실험을 실시하였다. 예

\* 정희원, 영남대 가정관리학과 강사  
\*\* 정희원, 영남대 대학원 가정학과 석사과정  
\*\*\* 정희원, 영남대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비실험은 20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1993년 4월 13일부터 27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의 요인구조, 기여율, 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피험자 판단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21쌍의 형용사를 본 실험에 이용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표 1>에서 제시한 커피숍의 실내분위기 평가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형용사 21쌍을 Y대학교 남녀학생 200명(남자 86명, 여자 114명)을 대상으로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실험의 기간은 1993년 5월 18일부터 6월 24일 까지이다.

<표 1> 본 실험의 평가항목

형이상학적이다	-	형이하학적이다
은은하다	-	화려하다
화사하다	-	침침하다
이지적이다	-	저속적이다
다정스럽다	-	쓸쓸하다
반듯하다	-	배들다
풍부하다	-	빈약하다
전통적이다	-	이국적이다
넓다	-	좁다
생기치 않다	-	침울하다
사치스럽다	-	검소하다
장신적이다	-	캐주얼하다
감각적이다	-	이성적이다
가볍다	-	무겁다
복합적이다	-	단조롭다
정리정돈하다	-	어수선하다
단순하다	-	복잡하다
열정적이다	-	소극적이다
대담하다	-	아기자기하다
단정하다	-	혼잡하다
편안하다	-	불안하다

### 3. 실험방법

먼저 조사원 7명이 예비조사로 대구 시내 커피숍을 예비조사하였다. 그 결과 6가지 분위기로 선정된 12곳의 커피숍 전반적인 분위기를 5분간 비디오 촬영하였다. 그것을 다시 1분간으로 재편집하였으며 중요부분은 사진촬영을 해 두었다.

평가방법은 어떤 개념에 대하여 느끼는 감각을 취하는 심리적 수법의 하나인 SD(semantic differential method)법을 사용하여 얻어진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분석한다.

실험방법은 우선, 비디오 촬영한 커피숍의 실내를 1분동안 보여주고 그 직감적인 느낌을 평가지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12개의 커피숍에 대해 모두 평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평가조건의 순서는 전번 평가의 영향을 덜 받도록 2그룹의 random으로 하였다.

실험하기 전에 피험자들에게 "비디오 촬영한 커피숍의 실내를 보고 전체의 이미지를 직감적으로 답해 주세요" 라고 제시한다.

평가는 7단계 SD법을 사용해서 피험자 자신의 평가용지 12장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 4. 데이터의 처리방법

데이터는 같은 분위기로 제시한 두 곳의 평가치 평균을 사용하였다.

데이터의 처리는 SPSS PC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평가항목간의 상관계수에서 직접 배리막스 회전을 행하여 요인구조를 결정한다.
- 각 평가항목을 7단계로 척도화 해서 얻어진 데이터에 긍정적인 것부터 부정적인 것까지 7-1의 득점을 주어 조건별로 평균치를 낸다. 이 평균 SD득점의 이미지 프로필을 그린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요인분석과 요인분류

본 연구에서는 개인 SD득점 및 각 평가대상마다 SD득점 평가치를 데이터로 주성분 분석후 배리막스 회전을 행하여 요인구조를 결정한다.

본 실험의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에 나타난다.

제 1 요인은 '형이상학적이다', '다정스럽다', '반듯하다', '정리정돈하다'로 묶여졌으며 커피숍 공간자체의 종합적인 평가로서 "평가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제 2 요인은 '은은하다', '단정하다', '전통적이다'로 묶여졌으며 커피숍의 전통성에 가치를 두고 있다고 생각되어 "전통성"이라 명명하였다. 제 3 요인은 '가볍다', '단순하다', '풍부하다', '편안하다'로 묶여졌으며 "풍부성"이라 명명하였다. 제 4

요인은 '화사하다', '열정적이다', '넓다', '생기차다'로 묶여졌으며 공간의 넓이나 활동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개방성"이라 명명하였다. 제 5 요인은 '이지적이다', '대담하다', '사치스럽다', '정식적이다' 으로 묶여져 "호화성"으로 명명하였다. 제 6 요인은 '감각적이다', '복합적이다'로 묶여져 "감각성"으로 명명하였다.

각 요인의 설명변량은 제 1 요인 27.2%, 제 2 요인 23.8%로 이 두 요인의 설명력이 50%에 달하였으며 전체변량은 88.9%의 설명력을 가져 높은 설명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표 2> 요인분석

요인 순서	평가항목	공통성	요인 명명	고유치	설명량	
					공통 변량(%)	누적 변량(%)
1	평이상학적이다 다정스럽다 반듯하다 정리정돈하다	.709 .907 .756 .755	평가성	5.71612	27.20	27.20
2	은은하다 단정하다 전통적이다	.052 .052 .034	전통성	4.99394	23.80	51.00
3	가볍다 단순하다 풍부하다 편안하다	.301 .227 .518 -.237	풍부성	3.12205	14.19	65.90
4	화사하다 열정적이다 넓다 생기차다	.123 -.120 .338 .046	개방성	2.19650	10.50	76.30
5	이지적이다 대담하다 사치스럽다 정식적이다	.462 .127 .028 .532	호화성	1.62648	7.70	84.10
6	감각적이다 복합적이다	.128 .167	감각성	1.01703	4.80	88.90

## 2. 평균치 프로필에 의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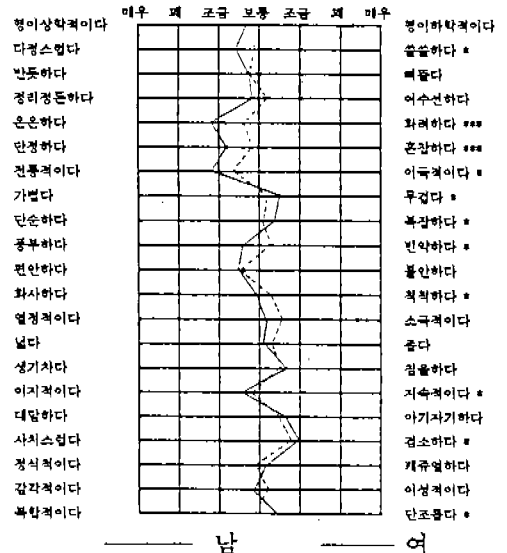
6종류의 커피숍에 대하여 각 평가항목의 평균 SD득점을 성별로 나타낸 이미지 프로필을 그려 성별의 이미지 특성을 살펴보고 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차이검증을 행한 결과를 아래에 나타내었다.

### 1) 전통풍

전통풍에서는 제 2 요인인 전통성에서 단연 평가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다정스럽다', '이지적이다' 등 전통적인 항목에 두드

러지게 그 평가가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른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제 1 요인인 평가성과 제 2 요인인 전통성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제 1 요인의 '다정스럽다'에서는 P<.05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제 2 요인의 '은은하다', '단정하다'의 항목에서는 P<.001의 수준으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제 3 요인의 풍부성에서는 전반적으로 여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었으며, '풍부하다'에서는 남자가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가볍다', '단순하다', '풍부하다'에서는 P<.05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제 4, 5, 6요인에서는 전반적으로 성별에 대해서는 뚜렷한 차이는 없었으며 '화사하다', '이지적이다', '사치스럽다', '복합적이다'에서 P<.05의 수준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그림 3-1) 성별에 따른 전통풍 커피숍에 대한 이미지 프로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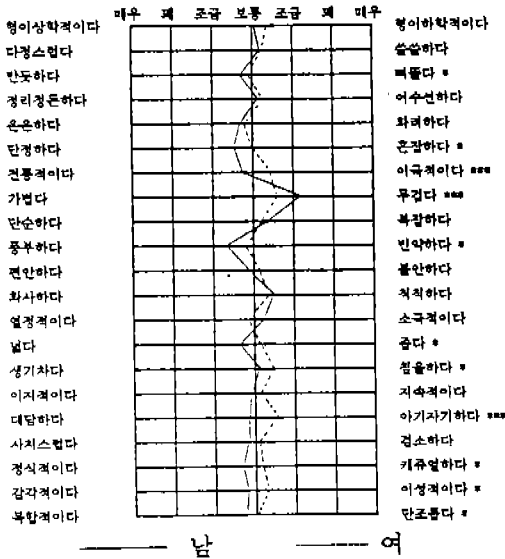
### 2) 목가풍

목가풍에서는 은은하고 단정하고 전통적인 느낌과 풍부함을 나타내는 항목들에서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제 1 요인인 평가성요인과 제

2 요인인 전통성요인에서는 전반적으로 성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반듯하다', '단정하다' 에서는 P<.05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전통적이다' 에서는 P<.001수준으로 남성이 평가가 높았으며 '가볍다' 에서는 P<.001수준으로 여성이 평가가 높았다.

특히 '풍부하다' 에서 평가가 높았는데 P<.05수준으로, '대담하다' 에서는 P<.001수준으로 남성이 높게 평가하였다. '넓다', '생기차다', '정식적이다', '감각적이다', '복합적이다' 에서는 P<.05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림 3-2) 성별에 따른 목가풍 커피 습에 대한 이미지 프로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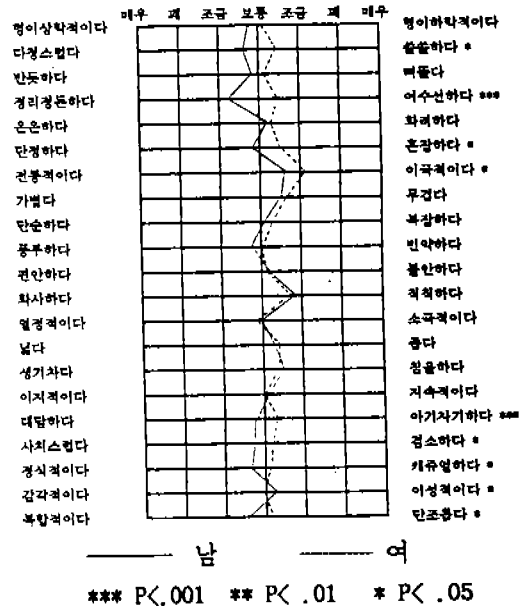
### 3) 짜즈풍

짜즈풍에서는 이국적이고 무거움, 좁고 침울한 느낌을 나타내고 있었다.

평가성, 전통성, 풍부성요인에서는 전체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특히 '다정스럽다', '단정하

다', '전통적이다', '사치스럽다', '정식정식적이다', '복합적이다' 에서는 P<.05수준으로 남성이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대담하다' 에서는 P<.001수준으로 남성이 높게 평가하였으며 '감각적이다' 에서는 P<.05수준으로 여성이 높게 평가하였다.



(그림 3-3) 성별에 따른 짜즈풍 커피 습에 대한 이미지 프로파일

### 4) 클래식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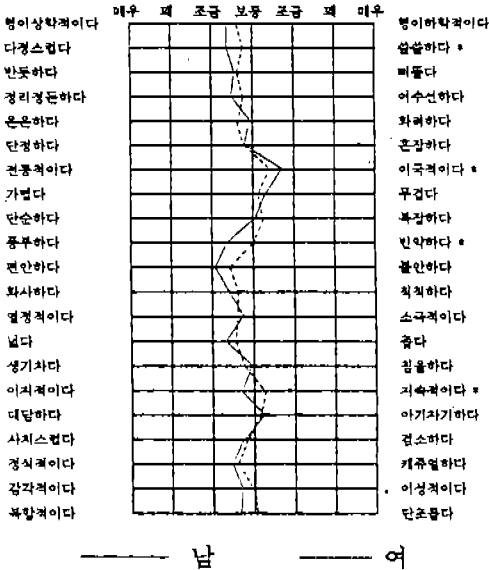
클래식풍은 전반적으로 평가가 좋았으며 이국적이고 풍부함, 편안함, 정식적인분위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클래식풍을 보면 평가성요인의 항목에서는 남성이, 전통성요인의 항목에서는 여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다정스럽다', '전통적이다' 의 항목에서는 P<.05수준으로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풍부성요인과 개방성요인에 속하는 항목에서는 전반적으로 남성이 평가가 높았는데 '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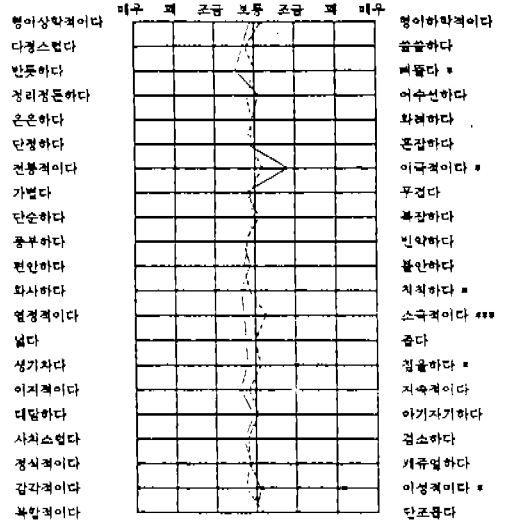
적이다'에서는 여성의 평가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호화성요인에서는 '이지적이다'에서  $P < .05$ 수준으로 남성이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높게 평가하였으며 감각성요인에서는 '감각적이다'에서 여성이  $P < .05$ 수준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3-4) 성별에 따른 클래식풍 커피숍에 대한 이미지 프로파일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3-5) 성별에 따른 모던풍 커피숍에 대한 이미지 프로파일

### 5) 모던풍

모던풍에서는 '반듯하다', '이국적이다', '풍부하다', '화사하다' 등의 항목에서 평가가 좋게 나타났다. 또한 성별로 그 차이를 보면 평가성요인 중 '반듯하다'에서  $P < .05$ 수준으로 남성이 평가를 높게 하였으며, 전통성요인 중 '전통적이다'에서는  $P < .05$ 수준으로 여성이 더욱 전통적이라고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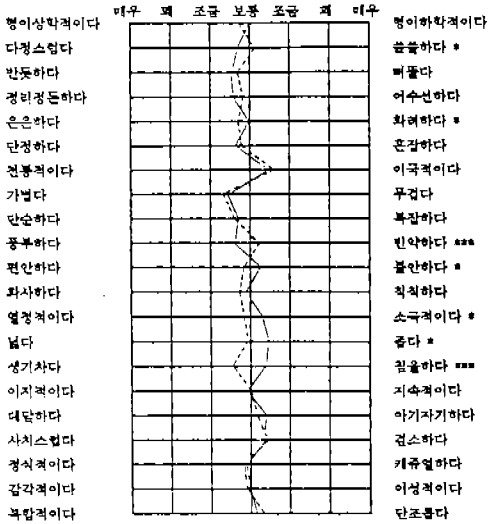
풍부성요인에서는 무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개방성요인에서는 전 항목이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평가하였으며 특히 '생기차다', '화사하다'에서는  $P < .05$ 수준으로 '열정적이다'에서는  $P < .001$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호화성요인에서는 '이지적이다'에서 남성이

### 6) 셀프

평가성요인에 속하는 평가항목은 모두 남자가 높게 평가하였으며 특히 '다정스럽다'에서는  $P < .05$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통성요인에서 '은은하다'는  $P < .05$ 수준으로 여성이 더 높게 평가하였으며 풍부성요인에서는 '풍부하다'에서  $P < .001$ 수준으로 '편안하다'에서는  $P < .05$ 수준으로 여성이 더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개방성요인에 속하는 항목은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성이 모든 항목에서 높게 평가하였다. 특히 '생기차다'에서는  $P < .001$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호화성요인과 감각성요인에서는 모든 항목들이

무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남 ————— 여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3-6) 성별에 따른 셀프 커피숍에 대한 이미지 프로파일

IV. 결 론

현대사회에서 만남과 휴식의 장소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커피숍은 그 분위기나 형태에 따라 선호도와 개성이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남녀대학생들이 선호하는 분위기 및 현재 일반적으로 디자인 되고 있는 커피숍의 분위기에 대해 어떻게 규정짓는가를 남녀대학생들의 평가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6종류의 실내분위기를 가진 커피숍을 각각 SD법을 이용하여 공간평가를 실시하여 요인분석한 결과, 요인은 6개로 묶였으며 제 1 요인을 평가성, 제 2 요인을 전통성, 제 3 요인을 풍부성, 제 4 요인을 개방성, 제 5 요인을 호

화성, 제 6 요인을 감각성이라 명명하였다. 이들 6개 요인의 설명변량은 88.9%로 높은 편이었다. 이들 요인들은 평가자의 성별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통풍과 목가풍 커피숍에서는 전반적으로 모든 요소에 대해 남녀간에 뚜렷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켄즈풍 커피숍에서는 평가성 및 전통성, 호화성, 감각성에서, 클래식풍 커피숍에서는 평가성 및 전통성, 풍부성에서, 모던풍 커피숍에서는 평가성 및 전통성, 개방성, 감각성에서 남녀간에 뚜렷하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참고문헌

안옥희, 실내디자인, 서울: 미진사, 1993.  
 일간 건축문화사, 상업건축, 서울: 산업도서를판공사, 1993.  
 이창노, "고층부 레스토랑의 실내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 1988.  
 최혜경, "시설 주거식당의 가구배치가 공간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1986.